

일기·이야기책·백과사전... 조선의 인문 콘텐츠를 들여다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책

김진섭 지음

‘목재일기’, ‘미암일기’, ‘이재난고’, ‘금오신화’, ‘어우야담’, ‘지봉유설’...

위에 열거한 책들은 조선 당대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책들이다. 좀 더 세분해보면 일기, 이야기책, 백과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는 사대부가 문자, 그 가운데 한자를 독점했다. 그들은 한자로 된 글을 읽는 데서 나아가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전해오는 책은 당대의 생활상을 물론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다.

오늘날을 일컬어 콘텐츠 시대라고 한다. 세계를 매료시킨 우리 콘텐츠는 드라마와 영화, 노래 등 장르를 초월한다. 우리만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콘텐츠의 원 소스는 상당 부분 책에서 기인한다. 책은 모든 지식의 보고이자, 모든 정보의 집합체다.

언급한 대로 조선의 시대는 다양한 책들이 발견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책들이 편찬됐는데 종류도 다채롭다.



조선의 책을 두루 볼 수 있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책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춘천교육대 겸임 교수를 역임한 김진섭 교수가 발간한 ‘조선의 책’은 일기부터 이야기책 그리고 백과사전까지를 아우른다. 저자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비아 청산가자, 김법린’, ‘일제강점기 입학시험 풍경’, ‘정도전의 시대를 읽다’ 등을 펴냈다.

저자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모쪼록 가벼운 마음으로 조선의 책을 둘러보는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즘 우리 역사 속에서 인문 콘텐츠 탐구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먼저 ‘목재일기’는 목재 이문건(1494-1567)이 쓴 방대한 분량의 일기다.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꼼꼼하게 수록한 덕분에 16세기 생활사를 이해하는 중요 자료다. 아내와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점이 이채롭다. 이문건의 기생과 어울리다 외박을 한 탓에 아내와 다투었던 일까지 기록을 했다.

‘방에 들어와 아내를 보니 아내가 성을 내며 질투하기를 ‘벌지도 않은 곳에 있으면서 어쩌서 밤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생을 끼고 남의 집에서 잤느냐? 이것이 늙은이가 할 짓이나? 왜 아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내놓고 자꾸 질책하기에



조선시대에는 일기, 이야기책, 백과사전 등 당대 생활상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책이 출간됐다. 사진은 작가미상 책기도.

들기 거북해 나도 부드럽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대부의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는 ‘미암일기’는 미암 유희춘(1567-1577)이 죽기 전날까지 10년간 친필로 썼다. 공적인 사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 등 보고 들은 바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특히 ‘미암일기’에는 모범적인 부부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비교적 금슬이 좋았다. 간혹 갈등이 발생하면 유희춘이 부인의 말을 수용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이야기책 ‘금오신화’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다. 당대 천재로 알려진 김시습이 쓴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 5편이 수록돼 있다. 한국 소설의 발달사에서 소설이라는 양식이 확립된 것은 ‘금오신화’에 이르러서이다.

‘지봉유설’은 지봉 이수광(1563-1628)이 세 번에 걸쳐 중국 사진으로 다녀온 경험을 기술한 책이다. 정치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 3453

항목을 다뤘으며 다양한 내용과 함께 비평과 고증을 곁들였다. 특히 책은 중국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천주교와 서구 문물을 소개해 조선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책에는 지방 선비의 시대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이재난고’, 이야기의 확장을 시도한 ‘어우야담’, 18세기북학파와 19세기 개화사상을 이어주는 ‘오주연문장전산고’ 등도 있다.

<지성사·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러브 몬스터

이두은 지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다. ‘요양 중이니 당분간 찾지 말라’는 문자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문자는 평소 엄마가 보낸 스타일과는 달랐다. 평상시에 엄마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이번 문자에는 마침표가 있었다. 몇 달 전 엄마와 다투고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하는 지민은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 돌아갔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마침표가 내내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과연 엄마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난 2016년 ‘시스터’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 이두은은 장르의 새 지평을 여는 괴물 같은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펴낸 ‘러브 몬스터’는 슬막하게 압도적인 러브 서스펜스물이다. 작가는 지난 2017년 교보문고스토리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장편 ‘타오르는 마음’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소설은 ‘한국 문화계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찬사와 함께 주목을 받으며 등장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저자는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 ‘사랑’을 모티브로 역동적인 서사를 풀어낸다. 줄거리 소개만으로 서평단 모집에 하루 만에 500여 명이 지원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작품은 어느 도시의 수영장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지민이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가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가 있다. 지민은 엄마가 꾸준히 다니던 수영장에 등록해 뭔가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엄마는 몇 달 전 기록이 끊겨 있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다. 수영장을 위해 딱깅을 모으고 있으니 보태라는 내용이었다. 문자와 전화에 답을 하지 않자 중년 여자가 지민을 찾아온다.

<창비·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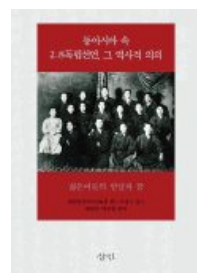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김성경 지음

지난 2019년 2월 2·8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도쿄 재일본인역사자료관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다.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의 의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자들이 모였다.



‘2·8독립선언을 3·1독립운동의 도화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만의 독자적인 의의를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2·8독립선언이 3·1독립운동을 이끌어냈고 이후 중국의 5·4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동아시아에 전개된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취지였다.

‘2·8독립선언을 조명하는 연구서가 발견됐다. 재일본인역사자료관이 편저한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도쿄 2·8독립선언을 새롭게 들여다본다.

1919년 2월 8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본조선기독교청년회 회관 강당에는 수백명의 조선인 유학생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11명의 대표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작성된 선언서는 ‘한국병합’이 조선인 의사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야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담고 있다.

책은 언급한 대로 2019년 당시 심포지엄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2·8독립선언 제고-3·1독립운동의 ‘도화선’을 넘어’ (오노 야스테루), ‘2·8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에서의 기독교’ 등 모두 6명 학자들의 글이 실렸다. 이들은 일본과 세계의 나라들은 조선에 민족자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인·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떠나온 여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남북 분단 78년, 분단 이전의 기억을 가진 이들도 생을 다 해 가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북에 대한 감정은 적대감과 거리감이 함께한다. 우리에게 북한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자 ‘갈지만 다라’ 나라로 인식돼 왔다.



가부장제의 억압과 체제 경쟁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북한 여성의 서사를 다룬 책이 나왔다. ‘마음’을 키워드로 분단의 문제를 탐구해온 책의 저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사회와 문화, 이주, 여성, 청년, 영화 등을 연구 주제로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등 관련해 다수의 책을 펴냈다.

책은 총 3부에 걸쳐 북조선의 여자들이 대해 말한다. ‘살아남은 여자들’,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 ‘분단, 그리고 나’ 섹션을 통해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조명한다.

책은 산문과 소설, 편지 등의 형식을 차용해 북조선 여성들의 역동적인 삶을 복원시킨다. 천리마시대(1956-1972)를 대표하는 노동영웅인 김학실의 이야기와 의복공장을 세워 시장에 뛰어들 ‘해월’이 화폐개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탈북하는 과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찬했다고 알려진 인민들의 행복과 청년세대 이상을 다룬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를 차용해 재구성한 ‘수련’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북조선 여성들의 이미지와 서사는 사실과 사뭇 다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북에 대한 무관심은 남한사회의 역사적 중층성에 대한 무지로 이어진다고, 그들은 사실 우리의 거울상이라고 말한다. <창비·1만8000원>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2월호

2023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도서관은 살아있다

- 넓어진 품, 도서관은 진화 중
- 글로벌 랜드마크 된 해외 유명 도서관들
- 광주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영도 로케이션

美路 味路

세계질 오감 힐링 정남진 여행
장흥은 어머니 품이다

정남진에서 뻗어가는 통일꿈
어촌문화 오롯이 간직한 '소등섬' | 정남진 토요일
친환경 '장흥 무산김' | 정남진 장흥한우 풀깃한 육포 편식
살바카레 '다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⑦

'조선의 선비' 정여창 배향하는 함양 남계서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④
한국야구 성지 무등야구장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②
명분 없는 권력의 광기, 조선 중흥의 기회 건어차다

에앙 초대석

AI-데이터아티스트 민세희

“콘텐츠와 문화 기술 만나면 잠재력 무한”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독자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작품 쓰고파”

해외문화기행⑧-헬싱키(하)

감각적 건축물 준비한 '세계 디자인 수도' 헬싱키

스포츠 이야기
광주FC, 치앙라이서 2023 시즌 담금질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④ 부산광역시

물류도시를 관광도시로 바꾼 공공미술의 힘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④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별이 된 아이들과 함께 희망 만나는 연대의 공간

문화 트렌드
종이책 완독보다 전자책 '발췌독'으로 진화하는 책 읽기 감수성